

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10
Oct. 2017
Vol.5 No.10

- 주안에만남
- 제6기 힐링캠프
- 안수집사회 소식
- 교육부 소식·간증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새로운 목장의 리더로 쓰임받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혁 목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다슬 기자>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고...

■ '목장 시스템'을 위한 소그룹 리더훈련

2017년 하반기 교구개편에 앞서 많은 변화가 생긴다. 우선 구역을 “목장”이라 칭하고 구역원을 “목원” 구역장을 “목자” 그리고 교구장을 “목자장”으로 칭하고 교재도 공과책 없이 주일설교에 집중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된다.

이를 위하여 10월 8일(주일) 오후 2시 45분부터 4회에 걸쳐 LA채플에서 소그룹 리더교육이 진행된다. 10월 8일 첫번째 시

에 기존 교구장, 구역장 및 부구역장과 새로 세워질 예비리더까지 약 200여분이 모여 담임목사님이 직접 진행하였다.

첫시간에는 새로워진 소그룹 목장 매뉴얼을 하나씩 고지 및 점검하며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로써의 자세를 배웠다. 기성화된 공과교재가 아닌 우리가 함께한 예배의 설교를 중심으로 삶을 나누게 될 모임에서의 리더역할은 이전보다 더 큰 헌신과 준비된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성도간의 교체는 이전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형성의 기대가 이 시스템의 시작이다.

둘째 시간에는 처음 접한 모임의 진행방식이 길지 않은 시간, 그것도 매주 식사 시간을 통해 진행되어질 모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 상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직접 지난 주 말씀을 놓고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면서 모임을 어떻게 리드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게 될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리더의 구체적인 역할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교제를 의지하여 준비없이 구역모임을 진행했던 몇번의 기억이 있는 리더들 사이에 선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6면에 계속> | 채은영 기자 |

■ 밸리채플 주안에만남



황은주 집사



김신 집사



이윤미 성도



기다음 성도



장미리 집사



함승민 집사/고한선 성도



이카일 성도/태영 집사



강종완/최희랑 성도



강재욱/수미 집사



황원 집사/인숙 권사



조광식 집사



이현숙 집사



김은희B 집사

17명의 새가족 “행복한 교회, 빠른 정착”

지난 10월 12일(목요일) 저녁 7시, 밸리채플에서는 주안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일날 오후에 주안에 만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주중에 모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17분의 새가족 분들이 참석하여 그 뜨거운 열기를 짐작케 했습니다.

먼저 새가족부와 권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를 맛있게 나누고, 이어서 오병순 권사의 인도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평신도사역훈련원(이하 평사원) 팀장인 이정미 권사의 주안에 훈련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훈련 참여에 대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주안에 캠프, 주안에 마음, 주안에 양육, 주안에 사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꼭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받으실 것과는 ‘예수그리스도 안에 성숙하여지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최혁 담임목사님께서도 교회비전과 목회철학을 설명하시면서 주안에교회가 지향하는 4가지의 목회방향을 일일이 알기 쉽게 설명하시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므로 세상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또 한 가정씩 돌아가며 기념사진도 목사님과 함께 찍었으므로, 곧 예쁘게 만들어 각 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열일곱분의 각자 자기소개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주안에교회에 오시게 된 동기등을 듣는 시간도 가졌는데, 이분들 중에는 벌써 오래 전부터 교육부 교사로, 성가대 대원으로 봉사하시고, 또 이번 6기 주안에힐링캠프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셔서 각자 스스로 얼마나 빨리 주안에 성도로서 자리매김 하고 계신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모인 우리 주안에 새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자 되어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주안에 일꾼이 모두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광영 기자 |

LA채플 주안에만남



최주라 집사



정화숙B 집사



김유미B 권사



인경진 성도



김효진 성도

동기는 달라도 '말씀의 은혜' 같은 마음

10월 27일은 금요일이었다. 주안예교회가 처음으로 주일이 아닌 금요일에 마련해본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행사인 "주안에 만남"이 오후 7시부터 엘에이 채플에서 진행되었다. 열려와서 달리 하루일과를 마치고 새가족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한분 한분 자리를 채워 가시면서 새가족국에서 정성껏 마련하신 식사를 나누시며 주안예교회의 일원이 되어보려는 마음을 다져가고 있었다.

늘 그렇듯이 찬양과, 평사원의 "주안에훈련" 시스템 소개에 이어서, 담임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자기소개 시간이 뒤따랐는데, 어느 때보다도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오래전부터 듣고 계셨다는 분들이 많았다. 물론 오랜시간을 교회와 거리를 두고 지내오시던 분도 계셨고, 섬기시던 교회에서의 상처로 인하여 방향을 하시던 분도 계셨다. 하지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벌써 알고계신 분들이기에 이 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분들은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며 새롭게 믿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거라고

기대를 해본다.

유난히도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분이 많았던 10월의 엘에이 채플의 "주안에 만남"은 깊어가는 가을에 걸맞는 "앓을 삶으로"라는 평사원의 모토를 가슴깊이 간직하는 만남으로 기억되어지기를 바라며 미사일과 핵이 우리를 불안케하고, 알 수 없는 자연재해가 내일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내일은 더 맛있게 익어있을 김치와 물경하게 끓여져있을 찌개를 상상하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만을 염려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 드린다.

| 오희경 기자 |



한동수/이레베카 집사



이벤자민/이종진B 집사



오형규/박명자B 성도



이조앤나 권사



정합희 권사



맹신디 집사



윤목란 집사, 유수잔 집사



심혜민 집사



송혜경 성도



남광희 집사/권수현 권사



박상미/박성우 집사

■ 제6기 힐링캠프

말씀으로 빚어낸 치유·평안·기쁨

지난 5기 때 너무 많은 seekers 들이 참여한 영향일까?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인 49명이 10월 1일(주일) 오후 3시 30분, 밸리채플에 모여 접수를 하고 권사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간식을 먹은 후 오후 4시 50분 김진석장로님의 기도와 함께 버스를 타고 빅베어로 향했다. 전례 없이 단출한 seekers와 75여명의 Supporters 였다. 한국의 긴 연휴로 방문객들이 집집마다 찾아오는 바람에 신청을 취소한 몇몇 Seekers 들도 있었다.

가을이 물들기 시작한 Big Bear로 조금은 흥분된 기대감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써포터즈들도 삼삼오오 오르기 시작 했다. 기도하며 준비했던 자리는 언제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 생활이 말해 주고 있어서 떠날 때부터 부푼 기대감으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궁금했다. 이렇게 준비한 Supporters 가 더 은혜 받는 자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힐링캠프이다.

이번에 더욱 기쁜 것은 Supporters의 새벽 기도회가 있었다. 기도를 시키실 때는 하나님의 비밀 선물이 있기 마련이니까 더 기대되고 궁금했다.

인원수가 적어서일까 모두 은혜 받은 밝은 얼굴들, 편안한 표정들 속에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지는 두 쌍의 부부가 시선을 끌었다. 젊은 한 쌍은 한국에서 지난 11월 결혼을 하고 한국의 긴 연휴를 이용해 시댁을 찾아온 새댁과 새신랑. 또 한 쌍은 Big Bear 근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 내외분이었다. 제일 가까운 거리와 제일 먼 거리에서 오신 두 분이 커플이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며, 우리 주안에 교회의 내일의 사역 계획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 같다.

언제나 밝게 웃고, 조용히 양보하며 자리를 지



키는 젊은 남편은 이광영 집사님과 임혜신 권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한국 제자 교회에 출석중인 이인규, 아내는 최유미 성도였다. 아름다운 겉모습보다 그 안에서 우러나는 성령의 충만한 아름다움이 돋보인 한 쌍이었다. 아마도 내년에 한국에서 시작하게 될 힐링캠프에 산파역을 해야 할 일꾼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 두분 외에도 한국에서 오신 Seekers 분이 계셨지만 유독 이 청년 부부가 아름답게 준비된 그릇 같았다.

또 한 부부는 남가주 열방교회를 시무하고 계시는 박민재 목사님과 박남진 사모님이셨다. 모든 Seekers의 눈물이 언제나 강의를 덮지만 목사님 내외분의 눈물은 아마도 가장 진한 눈물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힐링캠프를 끝내고 댁으로 곧장 가시면 좋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운전 하셔서 우리 주안예교회까지 간증하러 오신 목사님 내외분을 Seekers를 환영하려고 서 있던 우리 Supporters는 힘찬 박수로 먼저 맞이 했다.

박 목사님께서는 62세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진솔하게 최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계셨으며 우리의 세 채플도 일일이 방문

해서 돌아 보셨다고 자신을 밝히시면서 힐링캠프에서 은혜 받으신 밝고 맑은 얼굴로 말씀해 주셨다. “목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했었는데 부끄럽고, 이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은 복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힐링캠프를 왜 여러분들만 갖고 계십니까? 목사님들을 1000명 정도 초청해서 이 캠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고 유익할텐데 왜 여러분들만 이 힐링캠프를 하십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우리의 가슴이 다 같이 뜨거워졌다.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주안에 교회 힐링캠프국이 될 것을 믿는다.

지금까지 EM힐링캠프를 포함하여 벌써 여섯 번의 힐링캠프를 마쳤다. 그리고 내년 4월이면 7기 힐링캠프가, 그리고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한국에서도 힐링캠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방금 힐링캠프를 마친 성도님들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변함 없이 갖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기를 바란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에스터 기자 |

■ 야구 소식

역전... 재역전, 끝저에서 우승까지 깜짝 드라마

지난 10월 7일(토요일) 오후 12시, 아주사팍에서 우리 주안예교회 야구팀과 든든한교회 야구팀의 교회대항리그 결승전이 열렸다.

1회초 2점을 뽑아 앞서 나가던 우리 주안예교회는 1회말 3점을 빼앗기며 역전을 허용,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2회초 이어진 공격에서 3점을 내며 역전에 성공하고 계속해서 매회 착실히 점수를 빼내며 20대 7대 승을 거두었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우승은커녕 1승에 목말라 하던 우리 주안예교회 야구팀이 우승까지 하며 승승장구 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우승과 준우승을 한 두 팀은 각자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헌금을 하기 로 약속하고, 승패에 관계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축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며, 교회대항 운동이 앞으로 많은 종목으로 확산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의 모습으로 비쳐지길 기대해 본다.

| 이광영 기자 |

■ 건강보험세미나

소셜시큐리티·보험 등 미국생활 알찬 정보

보험 전문가로 오랫동안 일해오신 권상복 집사님께서 보험 세미나를 열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인 Social security,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등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셨습니다.

약 30여 분이 참석한 가운데 박현동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심으로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니, 미국에 살만큼 살았는데, 이렇게도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정보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나름대로 미국에 살면서 필요한 웬만한 기초지식과 기본정보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많았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권상복 집사님께서 그동안 보험전문인으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얻은 많은 정보와 경험,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은 나머지 많은 중요한 정보들을 다음 기회로 넘기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이날 세미나는 미국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많이 듣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접은 시절 미리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 조금 더 일찍 은퇴를 대비한 저축과 소셜 시큐리티를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남은 시간 안정적인 은퇴 연금을 위해 어떻게 하리라는 계획과 어떤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해야 하는가라는 정보는 아주 큰 소득이었습니다. 또 메디케어와 오바마케어 등의 정보를 통해 은퇴 뒤의 건강을 위한 보험

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세미나이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훨씬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세미나입니다.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시고 정보를 나누어주신 권상복 집사님과 교회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가능하면 이 세미나를 전 교우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레퍼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성운 기자 |

■ 안수집사회 소식(플러튼)

사랑의 교제, 귀한 간증 단합이 저절로...

주안교회 Fullerton 채플 안수집사님들이 모여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 김필립 안수집사님과 김희정 권사님 내외분께서 대문을 활짝 열고 장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안수집사회 단합대회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냐구요? 그 이유는 모든 분들에게 문을 연 오픈 파티였거든요. 일단은 장로님들에게 내외분이 함께 오시도록 공식 초청장을 보냈구요. 그리고 권사님들에게도 함께 오시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권상복 안수집사회 회장님께서 수많은 반대의견을 물리치고 회장 직권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신 결정이었습니다. 이날 김필립 안수집사님의 집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 넓은 집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박현동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찰도 많고 싸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자니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할 힘을 주시라고, 그러면 도와주실



니다. 아멘!

예배가 끝나고 김필립 집사님과 안수집사회 임원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음식의 다크호스는 새우구이였습니다. 큰 새우를 숯불에 정성껏 구웠는데 너무 맛있어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념과 굵은 비결은 일급비밀이라며 가르쳐주시지 않더군요. 그냥 구운 새우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만 하고 오면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식사대접하며, 굿은일은 손님으로 오신 권사님들이 더 많이 하셨습니다. 음식을 들고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음식을 대접하

고, 쓰레기도 치우고, 설겅기도 하고..., 권사님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김필립 집사님께서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7-8년 전에 사업에 실패를 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셨습니다. 주머니에는 2천만 남아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재기에 성공하고 몇 달 전에 이렇게 큰 집까지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도 교회 일에는 언제든지 활짝 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수집사회 모임에도 기쁜 마음으로 장소를 제공하셨고, 너무 감사하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 조성운 기자 |

■ 제6기 힐링캠프 간증

“꿀 같은 ‘만나’ 성령의 도우심”

교회에서 무엇을 진행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먼저 참여케 하였고 저는 아이가 좀 더 자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아이의 동의를 구하고 싶어 그 때를 기다렸고 4살이 된 올해 드디어 "올아, 엄마 산에 가서 성경공부하고 세 밤만 자고 올게. 괜찮지?" "응 괜찮아 엄마" 라는 답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남편도 기꺼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달을 기다리고 점점 날씨가 다가올수록 이상하게도 소극적이 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 그냥 가지말자. 어린딸아이를 두고 지금 내가 무슨짓을 하는건가. 특별히 간구해야 할 것도 없고 지금 가야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끌려가는 기분이 들기 시작한 저의 발걸음의 무거움은 출발한 버스 안에 앉으면서도 가라앉지를 않았고 떠나오기 전 딸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며 빠빠이를 하던 장면이 떠오르면 떠난지 한시간이 지났음에도 버스를 세워 뛰어서라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니다. 그러다 문득 올라가서 무얼 가지고 내려오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돌이키기에 늦었으니 무어라도 갖고는 내려와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번개같이 지나가는 생각 '나를 버리고 와야겠다' 였습니다.

그러곤 산장에 도착하니 만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났습니다. 주신 만나다 내것으로 만들어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하나 소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이 났었습니다. 닭똥같은 눈물의 딸아이의 모습은 더 이상 머리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잠자리에 들기전에는 지금쯤 자고 있었구나 싶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적어도 셋째날이 되기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만나가 꿀같이 다니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배

고프지 않고 잠을 잘 수 없어도 힘들지 않았었는데 셋째날 아침이 되자 문득 지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만나를 소화시킬 힘이 저에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젠 더 못해 이제 놓을거야 그게 무엇이든 놓아버릴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필기하던 동작도 멈추었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왜 그렇게 울었었는지 왜 그렇게 신이 났었는지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놓아버리고 멍하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왜 내가 하려고 하지, 난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그때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한마디 말씀도 내것으로 할 수 없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것을...그래서 열심히 눈물 콧물 다뺀며 소리소리 성령님을 불렀습니다... 솔직히 전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고 나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같아 울지 않으리라 계속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면서 다시 만나는 내 입에 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산장을 내려가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이러지... 구원의 확신도 다시 한번 받았고, 성령님도 정말 간절히 구하였고, 회개도 생각나는건 다 했고, 주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는 심정으로 이제 나를 버립니다 라고 외치며 다시 내가 살아나거든 지금을 생각하게 해 달라 기도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숨을 쉴 수도 없고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혹 이런 증상이 정상인가 싶어 옆에 분에게 물어 보기도 하였지만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싶었습니다. 억지로 억지로 괜찮아라고 외쳐보기도 하였

습니다. 마지막 날, 그래도 마지막이니 집중해서 듣자 싶기도 하여 열심히 필기하며 듣고 있는데 마치 섬광처럼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나를 붙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어디지?'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검은 산장을 내려오는 차 안에서 계속 되었습니다. 지아나, 넌 돈 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네.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당신도 아시잖아요. 그럼 지아나, 넌 너의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럼 너의 남편은 어때? 그렇다면 지아나야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준 딸은 어때니? 그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네 자신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당신이 딸을 위해 내게 부어주신 사랑의 양만큼 그 딸을 사랑하지만...네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지아나...넌 어때? 너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 순간 한대 얻어 맞은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나의 길은 편안해 보였지만 실은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고 말해 왔었던 그 모든 것의 이유가 그 누구보다 내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유함이라는 단어가 떠 올랐던 것도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껏 그래 오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요. 저도 이제 내 삶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수면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매일매일 간구할 것입니다. 그 래야만 나를 향한 아버지의 짝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을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남지아나 집사
(플러튼)

〈1편서 계속〉 농담처럼 “직분 내려놔야겠는데 ~ 하고 웃으며 돌아섰지만 마음으로는 내년은 올해와 많이 다른 모습으로 건전한 부담감을 감수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자인했다.

최혁 목사님을 필두로 교회에서 이런 변화를 추구하면서 느꼈을 사명감과 기대감 그로 인한 부담감이 리더들에게 경건한 자극을 주었듯이 이런 긴장감이 주안예교회 많은 성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교역자와 소그룹 리더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우리가 단순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각자의 정체성은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 11:1)” 은 바로 “성화” 가 수반되어야 한다. 일요일 교회를 들렀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는 고백을 하게 될 시급식이 되어줄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감당하는 멋진 주안예교회의 소그룹모임을 꿈꿔본다.

■ 제6기 힐링캠프 간증

하나님 말씀 확신과 생생한 감동

지난 5기 힐링캠프를 참석치 못해 7월에 있었던 기도학교를 갈 수 없었던 나로써는 어떻게든 6기 힐링캠프를 가야겠다고 결심했고, 한달 전부터 가게 사장님께 휴가를 주셔야겠다고 그냥 통보를 하였고, 반승락을 그 당시 얻어냈다. 그리고는 떠나기 전날 사장님으로부터 잘 다녀오라는 전화를 받아 은혜의 캠프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일전에 T.D를 다녀왔던 나는 혹시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내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인 진행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담임목사님께서 만나의 방에서 인도하시는 모든 강의는 우리의 신앙상태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 성경을 읽으며 궁금해 왔던 여



러가지가 은혜의 확신에 찬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다. 중보기도의 기도의 과수꾼에 대한 말씀하실 때는 다시 한번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뒤 이은 사랑에 대한 만나를 강의하실 때 너무나 많은 은혜가 되었다. 베드로의 세번 부인 뒤에 오는 예수님의 3번에 걸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반복되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풀이는 정말 명쾌한 것이었다. 히브리어로 해석하시며 필레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깊이를 다시 알게 되었고, 각자의 수준에 막제까지 내려가시면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십자가의 행렬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실 때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수 노이다스 아가페이 메!!"

많은 서포터스들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의 사랑을 느끼며,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시간을 내어서 나 또한 서포터스로 섬김을 해야겠다고 결단했다.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갈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께 강력하게 추천하고, 꼭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 주광식 집사(벨리) |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 나가며..."

먼저 이번 제6기 힐링 캠프를 통하여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생각에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간 산장에서 처음 반겨주신 서포터스 분들의 찬양과 천사같이 웃는 얼굴을 대하며 시작한 힐링캠프는 저에게 너무 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내가 꼭 붙들어야 하는 12번의 만나와 내 마음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섬김으로 씨커들을 섬겨주신 서포터스 분들의 손길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최혁 담임목사님이 전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한번도 인지하지 못한 마음의 과



녁으로 짓는 죄의 의미, 적나라하게 드러난 나의 실상,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리고 조건없는 사랑 이 모든 것이 말씀의 날 선 검이 되어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시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처절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순간 나의 자아, 생각, 마음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통의 무너짐이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며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은 나의 믿음을 3박 4일의 여정 가운데 새롭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두렵게만 느껴졌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지만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원리라는 배움을 깨닫게 되어 이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주시며 함께 하실 주님을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6기 힐링캠프를 다녀온 후, 저는 마음 속에 간절히 소원이 생겼습니다. 최혁 담임목사님을 통해 알려주신 만나의 말씀들이 이제 듣기만 하고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서 말씀들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과 오늘도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걸어갑니다. 감사합니다.

| 이레베카 집사(LA) |

■ 할렐루야 특별한 한마당

“자녀·부모들 어울려 즐거운 가족 잔치로”

해가 갈수록 원초적 의미를 벗어나 목적없이 떠들썩해지는 할로윈데이에, 악하고 단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분장하거나 귀신문화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즐기는 데만 그치는 세상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관습에 이끌리기 보다는 사랑안에 맺어 주신 관계들을 통해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밤에 이웃집을 다니며 사탕을 얻으러 다니는 것도 그리 안전한 것이 아니어서, 다니는 것 뿐만 아니라 집에 계신 분들도 편치 않은 밤을 맞곤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와 교회어른들이 화목하는 교제의 현장을 만들어 줌으로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특성있는 즐거운 추억의 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 교회에 머무르면서도 성인부 교육부 내지는 어린이들이 특히 이민교회내에서는 문화나 언어의 장벽때문인지 한데 어우러지는 계기를 갖는것이 쉽지 않고 각자의 필요만 채우는듯한 분위기에서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곤 합니다. 이 계기에 어린이들은 사랑을 받는 기회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어린자를 섬기는 사역의 기회로,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은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마음을 보내주는 계기로 내가족, 하나님의 가족됨에



대한 축복을 함께 나누는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도 가깝게 어우러지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친구들 초청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교구식구들이 아이들을 위해 먹거리 장터와 같은 다양한 메뉴로 아이들/학생들을 섬겨주는 시간점, 서로간에 좀더 친근한 교제가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면서 마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음식으로는 떡볶이, 오뎅국, 떡꼬치,

해물과전, 호떡, 과일/디저트, 팝콘/솜사탕, 피자, 김밥 등 채플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또한 도네이션, 선물 등 마음과 정성을 보내주시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모들 간에도 서로 서먹한 관계들을 넘어서는- 친분을 나눌 수 있는 자연스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교회의 다음세대들을 바라보고 섬기며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니콜 전도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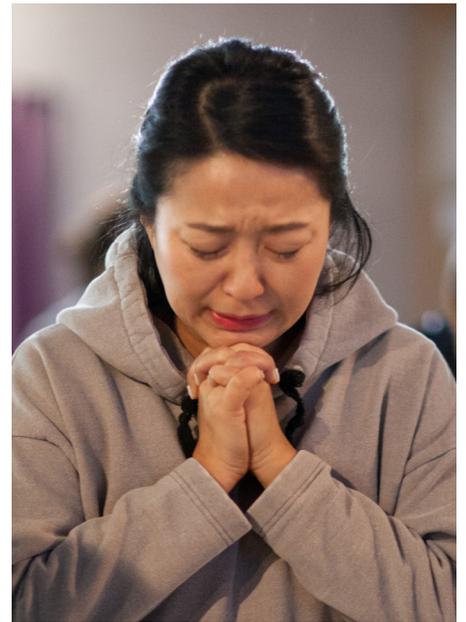


■ 제6기 힐링캠프 화보



몸도 마음도 힐링, 주님 사랑해요!

〈사진: 김다슬, 양영 기자〉



■ 추천도서 [파이터(복음을 위해 싸우는 자)]

넘어지더라도 다시 서는 거듭난 자들의 천로역정

책을 살 때면 우선 제목이 마음에 들어야 눈길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 책은 제목이 좀 도전적이라는 생각에 선택 손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장로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강대형 목사님은 죄의 유혹에 번번히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 십자가 복음과 회개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복음보다는 긍정적인 말과 사랑만을 강조하는 요즘, 도전적인 메시지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진실된 복음을 사모하고 싸우고 극복해야 하였습니다.

필자는 기도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가운데서도 기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더 깊고 넓어지도록 훈련하실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목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천로역정의 길을 잘 걷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더라도 성령충만은 받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교회에 다니도록 만들고, 영혼을 방치해서 굶주려 아사상태에 빠지거나 병들어 죽어 가게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은혜만을 강조하고, 믿음의 열매가 되는 행함을 등한히 여길 때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지은 죄는 별거 아니라는 무감각에 빠지고 죄를 철저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일도 게으르게 됩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용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는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말씀을 통해 영적 회복을 느꼈습니다. 주안예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책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로나아가는 길을 찾으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한번이라도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하여 이 책을 읽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 칼럼

사단의 방해를 뚫고...

힐링캠프에 한 사람이라도 Seeker 로 권면해 보내면 나는 연대 책임 의식이 들어 Supporters 로 자원하게 된다. 이번에 우리 구역의 마지막 타자를 등록 시키고, 기도하며 준비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공격하는 사단은 우리의 상황을 사용 하였고, 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 주 동안 키질을 하듯 볶아 댔다. 간경화에 걸려 3개월 살 수 있을 거라는 형제가 2년을 넘게 살면서 주안예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번에 주안에 빛을 끝낼 수 있었던 은혜를 입었는데, 동생 집사가 힐링캠프를 등록하고 나서 갑자기 황달기가 생겼고, 급히 가든그로브 병원에 입원 할 수 밖에 없었다. 간경화 환자가 황달이 생겼다는 의미를 알고 있던 나는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동생 집사를 힐링캠프에 가게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런데 다행히도 병원에서 그의 간으로 통하는 혈관에 돌이 두 군데 생겨서 레이저로 수술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는데 수술은 실패로 돌아 갔고, 밤 늦게 UC Irvine 으로 이송 되었다.

다음 날 새벽 예배, 수요일중보기도회에서 기도하며 수술이 성공 하기를 기도하였고, 그 다음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병든 형제를 돌보아야 하고 집사님의 아내가 가게를 지켜야 하는데 너무 아파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끝내고 헌팅톤 비치까지 혼자 심방하기로

하고 준비 하였다. 이제 막 퇴원해서 집에서 고통스러워 하는 분을 뵈고, 격려해드리고, 지난 기에 힐링캠프를 다녀온 병든 형님에게 기도의 지원을 부탁 드렸다.

올라가는 일행 권사 네 명이 한 차를 타고 가기로 약속을 하고 함께 모여 갔다. 3박 4일 동안 가을로 옷을 바꾸는 산림을 걷고 싶었다. 밤 안개가 내릴 때는 오솔길을 나서고 싶었다. 새벽 안개가 이슬비처럼 내릴 때는 아침을 먹기 보다 축축히 젖어 있는 산길을 걷고 싶었지만 받은 책임 때문에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사단에 놀렸던 사람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가며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고, 우리의 피로나 작은 불평을 흡수해 버리기에 충분 했다. 특히 간증을 들으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

벨리체풀에서 준비해 주신 김치 찌개로 점심을 먹고 퇴근 시간 트래픽을 뚫고 집으로 향했다. “사를 다녀 오는데 열흘이 나 된 거 같아요.” 뒤에 앉아 있던 권사님의 말에 내가 “그게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했더니 갑자기 모두 숙연해 진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삶의 원천이요 삶의 근본인 것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 닿을까?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활동의 근거가 된다는 당연한 사실 하나가 우리를 격려하는 귀가 길이었다.

| 이예스더 기자 |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박창신 기자)

치즈 소스 파내기 파스타



재료 파내기 모양의 파스타 12 온스 (3/4lbs), 버터(unsalted) 3큰술, 우유 ½ 컵, 무가당 연유(12lbs 1 can(생크림으로 대체 가능), 채넌 체다 치즈 ¼ 컵, 채넌 몬트레이 잭 치즈 ¼ 컵, 파마잔 치즈가루 ½ 컵(4lbs), 밀가루 1큰술, 빵가루 ½ 컵, 잘게 썬 파슬리 2큰술, 잘게 썬 파 ¼ 컵, 마늘가루 ½ 작은술, 바다 소금 약간, 후추가루 약간

조리법 1. 큰냄비에 소금을 약간 넣고 물을 끓인다. 여기에 파스타를 넣고 쫄깃하게 익을 때까지 삶는다(약 8-10분).
2. 파스타를 삶는 동안 팬에 버터 2큰술을 중간 불에 녹여 밀가루와 후추를 넣고 걸썩하게 될 때

까지 주걱으로 저은 후(1분), 우유, 무가당 연유와 ½ 작은 술의 소금을 넣고 약한 불에 가끔 저어주어 크림처럼 진득하게 되면(6-7분), 잭 치즈, 체다 치즈와 파마잔 치즈를 넣고 녹을 때까지 저은 후 따뜻하게 보온한다. 끓지 않도록 중약이나 약한 불에 조리한다.

3. 익은 파스타를 채에 바쳐 물기를 빼고 팬에 넣어 나머지 버터 1큰술을 넣고 잘 섞는다.

4. 파스타에 치즈 소스를 넣고 잘 섞어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 빵가루, 파슬리, 파, 마늘가루를 섞어 따뜻하게 상에 올린다.

*파스타는 구운 칠면조 고기와 푸른야채 Salad 와 함께 올 추수감사절 상에 좋은 메뉴이다.

■ 교구탐방(밸리6교구)



"교회가 필요하는 곳에 가장 먼저..."

지난 10월 15일(주일) 오후 5시, 황영옥권사님택에서 밸리채플 6교구 연합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황권사님의 맛있는 스테이크 풀 서비스 20여명의 교구원들은 사랑으로 함께 받은 것입니다.

정도영 장로/정혜옥권사님이 교구장으로 수고하시는 밸리채플 6교구는, 1구역 장에 홍영표 안수집사/홍영주 권사가 18분의 구역원들을 섬기고 있으며, 2구역 장에는 김경배 안수집사가 13분의 구역원들을 섬기는 교구입니다. 특별히 교구장이신 정도영 장로께서는 "항상 교회는 개인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며 교회 질서에 따르는 믿음의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구역장들이 무조건 순종하다 보니, 말씀에 따라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은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것 같다"고 김경배 2구역장은 웃으며 자랑을 합니다. 또 1구역장인 홍영표 집사는 "구역예배 때마다 공과말씀공부를 대충 나는 적이 없고, 기도로 성실히 준비하여 어느 교구보다도 말씀 공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구역원으로는 정산순사모님, 최창신 사모님, 최인자 권사님이 드림교구로 옮기신 후에, 이유경, 김윤자, 장미리 성도님이 새로 함께해 주셨고, 박정순 집사님께서는 담임목사님께 "아이고! 목사님, 주일날 교회 좀 나오세요" 라고 하여 우리 모두를 웃게 만드신 그분인데, 부군이신 박호권 성도님은 새벽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다. 새 교우이신 서부남 집사님 역시 새벽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여종이며,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강명근 집사님은 간호사였던 부인 강영순 집사님의 발빠른 간호로 건강이 회복되어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정정희, 박성진, 유승철, 황우영 집사님도 항상 묵묵히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섬기며, 지금도 교회의 필요에 앞장서 언제나 허드레 일과 부역일도 솔선하여 감당하시는 김준역 장로님, 장기영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황영옥 권사님, 장혜덕 권사님, 정혜옥 권사님이 기둥으로 굳게 서 계십니다. 김명철 집사님은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해오신 안수집사님이고, 간호사였던 부인 김은옥 권사님은 현재 항암 치료 중으로 6교구는 물론, 교회에서도 함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자형 집사님은 밸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교회에서 맡고 있는 반주를 마치고 곧바로 밸리채플 2부예배에 참석하시며, 자주 성가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성실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6교구는 특히 여성 성도님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밸리채플 권사회 회장이신 김정자 권사님을 필두로, 황영옥, 유진희, 장정보, 장혜덕, 안정순, 박미자, 홍영주, 정혜옥 권사님들 여러 권사님들이 뒤에서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6교구의 교구원들은 한분 한분이 모두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어느 곳이든 주저 없이 앞장서 찾아가 헌신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모범 교구입니다. 6교구 교구원 모든 분들께 축복을 기원드립니다. | 김신실 기자 |

■ 숨은 봉사자(김헬렌A 권사-밸리)

"새벽을 깨우는 선율"

매일 아침 새벽예배 때면 은은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먼저 한 곡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밸리채플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예배에 일찍 나오셔서 피아노를 반주하시는 Helen Kim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난 9월부터는 밸리채플 2부예배 시작 15분전부터 울컾의 반주에 맞추어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1시가 되면 찬양팀의 찬양에 맞추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일찍 오신 성도님들은 예배 시작 전에 울컾의 찬송가 반주에 맞추어, 한주간을 돌아보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먼저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역시 Helen 권사님의 봉사 덕분입니다.

적지 않은 연세에도 교회의 요청에는 항상 순종하시어, 바라보는 후배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늘 소녀와 같은 미소와 겸손하신 성품으로 성도들의 분을 보이시고, 힐링캠프 써프터즈로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며, 언제 어디에 계신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그리고 말없이 봉사하시는 믿음의 선배이신 Helen Kim 권사님을 주님의 아명으로 사랑하고 축복 드립니다. 권사님 더욱 건강하세요!

교/우/비/지/니/스



Deborah Hwang
Energy Consultant

Head Office
1367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06

Cell. 949. 874. 8825
Tel. 844. 264. 7336
Fax. 213. 341. 0144

OC Branch
13417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deborah@amgreensolutions.com
www.amgreensolutions.com

주안에 가족을 소개합니다!

주안예교회에서 체험한 '대박 은혜'

저는 주안예교회 코람데오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오제니퍼입니다. 저는 주안예교회에 있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안예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은혜와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의 중요함과 항상 영의 위치를 '주안에' 있어야 하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한다고 항상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좋으심이 참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힐링 캠프 1기를 시작으로 주안예교회에서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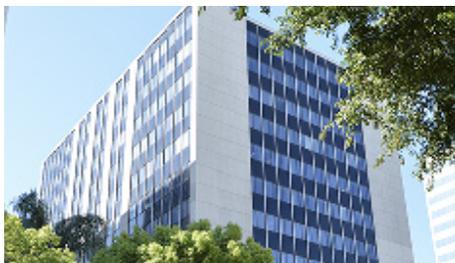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모태신앙인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성으로 찬양을 불렀었는데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온 맘 다해 주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을 부를 때,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저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싶어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늘 예배를 사모하는 저를 보며 다시금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부에 있던, 그리고 지금 있는 많은 청년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인성을 나누는 시간들이 참 소중합니다. 영어가 더 편한 저는 처음에 주안예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국 말이 너무 많아 교회에 오는 것이 꺼려지고 불편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안예교회를 통해 저의 얼어있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친동생처럼 챙겨주는 언니들을 만나고,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장점으로 생각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주안예교회로 인도하시고 저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좋아지니 섬기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되었고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갔더니 그 섬김 때문에 저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유익으로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한글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안예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대박이 난 사람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주안예교회에서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제니퍼 성도
(밸리 코람데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LA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30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금 저녁 7:3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목 저녁 7:15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수 저녁 7:30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주안에" 2017년
11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오병순, 오윤선, 오희경, 이예스터, 이지현,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